

#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7

## 사사기 10-12장 입다와 다섯 명의 소사사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7회기, 사사기 10-12장, 입다와 소사사 다섯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은 10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10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며 관련된 등장인물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 섹션에는 6명의 심사위원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로 강조되는 이야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다섯 명은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소심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6-8장에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와 9장에 있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리고 13-16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자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 사이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장의 첫 부분은 9장에서 아비멜렉의 격동의 삼년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는 아비멜렉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잇사갈 사람 도도의 아들.

그는 산간 지방 사밧에 거주하며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가 죽어 사밧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Tola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이번 녹화 직전에 누군가가 톨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말을 했고, 톨라에 대해 무슨 말을 해줄지 기대가 컸는데, 미안한데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게 전부이므로 이 정도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는 7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여섯 명의 주요 판사로 간주하는데, 우리는 전투와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5명, 어쩌면 6명의 소심판사. Tola는 확실히 이러한 소판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론 또 다른 소사사가 있는데, 3절과 4절, 실제로는

5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르 , 야이르 인데 , 우리는 그가 22년 동안 재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 곧 암나귀 30마리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30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단 동편, 갈릴리 바다 동편 길르앗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30이 숫자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번영했고 생산적이며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떤 실제적인 기본 의미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이 장의 끝까지, 또는 적어도 16절까지에서 우리는 2장에서 발견한 주제를 일종의 재진술 합니다 . 배교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의 편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교 숭배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것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올랐습니다.

7절에 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암몬 자손의 손에 잡혀서 압제를 받고 백성이 부르짖느니라. 10절에서, 2장과 대조되는 지금 이 장의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여기 10절에 있고, 그 다음에는 16절과 17절, 또는 15절과 16절에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전에는 그들이 근심하여 부르짖으며 구원을 구하였더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에게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줄곧 너의 신실한 구원자였으나 너는 나를 버렸느니라. 그리고 14절에서 그는 비꼬듯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가서 섬기라.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들은 15절에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을 우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15절, 16절, 자기 중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수아서를 읽거나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의를 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저편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라고 촉구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밀리에 이러한 다른 신들을 숭배해 온 것으로 여러 번 나타나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즉, 그분은 그것들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면이 전환됩니다.

17절과 18절은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쪽 곧 동쪽에 살고 있는 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현대의 요르단 국가인 수도는 암만이며, 그 이름은 성서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쪽과 북쪽으로 길르앗에 진을 치고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그들을 이끌고 암몬 족속을 치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10장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11장의 입다 이야기와 12장의 첫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11장은 암몬 족속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에 대해 배우는 방법입니다. 10장 17절에서 암몬 자손이 다시 갈릴리 바다의 북쪽과 동쪽에 있는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창녀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에게 불길한 시작이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긍정적인 자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내는 아들 몇 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고, 그는 쓸모없는 자들을 자기 주위에 모았습니다(3절). 그리고 그것은 당신 주위에서 행한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나오는 두 장 전인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9장 4절에는 아비멜렉도 무익한 자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다의 미래에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일으키셨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그는 아마도 일부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드온, 우리는 지금 입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의미에서 초기 판사들이 중립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인 책의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확실히 데보라는 누구보다도 빛납니다.

기디온은 좋은 자질을 갖고 있지만 마무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심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도 행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입다가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이 곳 미스바에서 자기가 한 말을 모두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대적하느냐? 12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로 입다가 그들이 비난한 것에 대해 대답하는 길고 인상적인 연설입니다.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았느니라.

그러므로 평화롭게 회복시키십시오. 그럼 지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 산으로 갔다가 여기로 와서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나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혼과 옥은 이곳 요단강 동쪽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영토를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혼과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곳의 암몬 사람들과 시혼과 옥의 후손들에게 안장 밑에 솟돌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은 그에게 몇 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나머지 부분인 12절이나 13절, 그리고 14절과 이어서 28절까지 입다는 자기들이 침략자였으며 자기들에게 불의를 행한 자들이었다는 비난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선조.

그리고 입다는 그들을 쫓아낸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17절에 에돔 왕은 우리가 지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을 원망하며 “아니다. 잘못은 너희 조상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아서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은 실제로 모압 영토에 있는 암몬 자손의 영토 일부를 빼앗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곳을 침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입다는 당신들이 왔던 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19절 이하에서 그 땅이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합니다. 그곳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암몬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입다 측의 지속적인 반박입니다.

24절에 이르면 모압의 신인 암몬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죄송합니다. 24절에서는 암몬 사람의 신을 그모스 또는 그모스라는 이름의 신으로 언급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그는 모압 사람들의 신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암몬 사람들의 신은 몰렉, 즉 멜츨이라는 이름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는 암몬이 있었고, 이곳에는 모압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신들과 여신들, 그리고 이교도들의 다양한 판테온들 사이의 유동성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문화적, 종교적 유산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40절까지는 입다가 암몬 자손을 최종적으로 패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와 그 지방을 지날 때에 32절과 33절에서는 그가 그를 쳐죽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를 치시매 그 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그래서 그것은 좋은 일이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입다에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큰 문제가 되는 작은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다가 여호와께 아뢰자 그의 경솔한 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하실 때, 6장에서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확증,

양털 등등. 비록 그것이 불필요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표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롭게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손에 암몬 사람들을 쳐부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서원을 했고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0절과 31절에서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무릇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노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성사시키자.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가 정확히 무엇을 의도했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의에 많은 잉크가 쏟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내 버전에서 읽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집 문에서 무엇이 나오든, 이 성서 버전과 다른 버전을 포함하여 많은 해석자들은 입다가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개 등 어떤 종류의 동물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가 주님께 바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비록 그 장군이라 할지라도, 나온 인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의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도 누구든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 버전인 영어 표준 버전의 각주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입다의 서원은 다소 비뚤어진 서원입니다. 성경 안팎에서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실천해 온 모든 문화에서 인간 희생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성경 문화권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신학적 토대는 신들을 달래거나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 중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신들.

그러므로 우리 농작물의 첫 열매를 주는 것이 합당하고 동물의 첫 새끼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면 더 나은 일의 다음 단계는 음,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왜 더 크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몸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느냐, 아니면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느냐? 이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실행했던 어린이 희생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희생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작물과 동물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셨지만 전혀 승인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인간 희생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오면 그의 딸이 나와서 탬버린과 춤 등으로 신나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것은 매우 경솔한 서약입니다. 많은 곳에서 인간 희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싶은 경우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8장, 예레미야와 선지자들, 예레미야 19장, 에스겔 20장, 에스겔 23장.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고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희생.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 주변의 일부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서원을 할 때, 서원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서원의 신성함과 그것을 지키고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입다가 이 서원을 지켜야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장 기본적인 금지 사항 중 하나와 충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희생은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입다는 실제로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한 마지막 요점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을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 아니, 그는 묶여 있었고, 끝까지 따라갔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문제는 원래의 서약이 경솔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내 견해는 아니요, 둘 다 성급한 것, 즉 서약 자체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약간의 모호함이나 적어도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체념한 것 같지만 몇 달 동안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고 남자를 만나지 않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처녀성을 애도하고 있다고 애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논쟁은 39절에 나옵니다. 두 달 후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갔더니 그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더라.

일부 학자들은 그가 실제로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언어가 모호합니다. 만일 그가 그랬다면, 그가 그녀를 제물로 바쳤거나, 주님 앞에서 그녀를 죽였다거나, 그와 유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제프가 결국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이 사건의 충격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희생하겠다는 맹세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용어가 모호한 만큼, 그녀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제물로 바쳐지기를 기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가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서원한 대로 행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를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는지 가차 없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입다는 기드온이 초기에 암몬 족속을 대적하여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비참하게 끝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슬픈 결말이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몇 년 안에 울려 퍼진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나흘 동안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녀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일종의 반복적인 준수가 되었고, 어쩌면 그 서약의 비극이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12장 1-7절에는 입다와 에브라임의 갈등, 즉 이스라엘과의 내부 갈등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도전하고, 에브라임은 8장의 기드온에 대한 에브라임의 도전을 어떤 의미에서는 반향하는 방식으로 입다에게 도전합니다. 8장 1-3절은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거나 진정시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패배했고, 그들은 실제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이나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고 작은 일, 거의 사소한 일이 있습니다.

6절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상대로 요단 나루터기를 빼앗고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는데, 에브라임의 도망자 중 한 사람이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지 아닌지를 일종의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곡식 이삭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는 shibboleth이며, 처음의 sh 소리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대에도

사람들이 때때로 혀를 차며 특정 종류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 소리. 그래서 사람들의 발음처럼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s 발음으로 시볼레스라고 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s 발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sh 소리가 나고, 그 사람이 잘못 말하면 자신이 잘못된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sibboleth 라고 말하면 그는 그것을 옳게 발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는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투에서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죽고 그 중 6명이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자기가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입다 이야기의 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종의 혼합된 가방이자 그의 생애 말년을 향한 일종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사사 세 사람이 더 등장하는 1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의 빠른 통지가 있습니다. 입산은 아홉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는 주로 구별되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는 주로 그의 딸 30명을 이방인 30명과 결혼시키는 것으로 구별되었는데,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판사들 자신이 이 책에서 배도의 하향 나선형의 일부를 구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이더 판사는 단지 중립적인 인물이며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종의 우회적인 논평에서 Ibzan이 통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부응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섞이고, 아마도 그 외국인들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도 수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이 부분에서 3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다 바로 앞의 판사들이 결국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야이르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음 사사인 입산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입다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전 사사에서 언급된 30명의 아들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삶의 비극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외동딸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결국 자식이 전혀 없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는 약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엘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에는 압돈이 자식이 많고 부유하여 아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30명의 손자, 70명의 당나귀, 그리고 이들 판사 중 몇몇은 자신의 직업에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었거나 부자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는 11번째 사사이고, 그 다음 마지막 사사는 13장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삼손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7회기, 사사기 10-12장, 입다와 소사사 다섯 사람입니다.